

#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의 문법 표현에 대하여

權容璟

神田外語大学

## 1. 서론

본고는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고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을 정리하고 어떤 문법 표현이 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상급 교재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이다.<sup>1)</sup> 권용경(2012), (2013)에서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으)ㄴ” 결합 구성과 “-느-” 결합 구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문법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본고는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문법 항목을 분석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과 관련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어휘 목록과 중급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sup>2)</sup>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통일된 문법 표현을 정하여 이를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를 대상으로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들을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2 단계)』에서 제시한 목록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한국어 상급 과정에서 배우게 될, 또는 배워야 하는 문법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sup>3)</sup>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이 기존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어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할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일단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문법 표현을 분류하고 이를 『표준 모형』에 나오는 표현과 비교하는 것에 머무르고 한국어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표현에 대한 고찰은 다음으로 미룬다. 이는 상급 과정의 문법 표현을 고찰하는 작업이 단순히 상급 표현 목록을 제시하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급 과정, 초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급 표현이나 초급 표현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상급 표현을 고찰하는 작업은 다음을 기하고자 한다.

## 2. 문법 표현의 유형 분류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을 대상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

표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이다. 상급 교재의 경우 조사나 어미 같은 단일 표현보다 두 개 이상의 형태가 결합된 복합 표현이 많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 나타나는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문법 표현을 분석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두 개 이상의 형태가 결합된 경우는 복합 표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일 표현으로 분류할 것이다.<sup>4)</sup>

단일 표현으로 분류되는 것은 의존명사 구성, 조사 구성, 어미 구성, 명사형 구성, 관형사형 구성 등이고 복합 표현으로 분류되는 것은 의존명사 결합 구성, 조사 결합 구성, 어미 결합 구성, 명사형 결합 구성, 관형사형 결합 구성 등이다. 상급 교재의 특성상 단일 표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명사형 구성, 관형사형 구성이 단일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복합 표현은 그 양상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문법 형태가 결합된 구성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법 표현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일단 본고에서는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을 다음 유형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우선 단일 표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단일 표현

- |               |            |
|---------------|------------|
| 가. 명사/의존명사 구성 | 나. 조사 구성   |
| 다. 접사 구성      | 라. 어미 구성   |
| 마. 명사형 구성     | 바. 관형사형 구성 |
| 사. 기타         |            |

위에서 제시한 유형 중에서 ‘명사형 구성’이나 ‘관형사형 구성’은 단일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표현은 중급 또는 초급에서 배우는 것으로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미 구성’의 경우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유형으로 나눌 필요가 있지만 일단 이들을 나누지 않고 ‘어미 구성’으로 통합하여 제시한다.

복합 표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2) 복합 표현

- |               |               |
|---------------|---------------|
| 가. 명사/의존명사 구성 | 나. 조사 구성      |
| 다. 어미 구성      | 라. 명사형 구성     |
| 마. 관형사형 구성    | 바. 조사-어미 구성   |
| 사. 어미-명사형 구성  | 아. 어미-관형사형 구성 |
| 자. 기타 구성      |               |

위에서 제시한 유형 중에서 ‘조사-어미 구성’, ‘어미-관형사형 구성’ 등은

한국어 교재에서 ‘-’이 두 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 표현이 결합되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구성은 ‘-’이 없거나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문법 표현을 위의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급 교재에서 어떠한 문법 형식을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물론 각 상급 교재마다 제시되는 문법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급 교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3.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을 분류하겠다. 우선 서울대학교 교재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문법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228 개 정도 나타나 다른 교재에 비해 많은 문법 표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재에서 ‘문법과 표현’에 나타나는 표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단일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sup>5)</sup>

#### (3) 단일 표현

가. 명사/의존명사 구성: 가운데

나. 조사 구성: -마저, -(으)로(서), -(으)로(써), -은/는커녕, -(이)야, -(이)야말로, -조차

다. 접사 구성: -거리, -당, -롭다, -별(로), -스럽다, -(으)ㄴ, -질

라. 어미 구성: -고말고(요), -노라면, -다가는, -다면서(요)?, -다/자/냐/라니까, -다/자/냐/라면서, -더군(요), -더니만, -더라고(요), -아/어다(가), -(으)나, -(으)므로, -(이)로구나

마. 기타 구성: 고작(해야), 그랬더니, 당연히, 당하다, 마지못해, 몰라보게, 무려, 무엇[누구, 어디]보다도, 무작정, 믿음직[먹음직, 바람직]하다, 쓸데없다, 아주, 안절부절못하다, 오히려, 차라리

(3 가)의 ‘가운데’는 ‘서울 시민 가운데’의 예처럼 명사 뒤에 연결되는 표현이다. 이를 문법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지만 단일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표준 모형』에서는 ‘-는/은 가운데’를 고급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3 가)의 ‘가운데’의 경우 초급 어휘로 분류되어 있다. (3 나)의 ‘-(으)로(서), -(으)로(써)’나 ‘-마저, -조차’의 경우 상급 표현으로 배워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이들을 고급으로 분류하였다.

(3 다)는 접미사가 연결되는 표현인데 ‘-별(로)’도 단일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으)ㄴ’은 ‘슬픔, 웃음, 걸음’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 접미사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했다. 접사와 관련해서는 『표준 모형』에서는 접사와 관련되는 형태를 분석하여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접사 구성의 경우 따로 목록을 찾기 어렵고 어휘 목록에서 각각의 접사가 연결된 단어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상급 과정에서 접사에 대한 부분을 상급 표현으로 해야 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라)의 어미 구성에서 ‘-다/자/냐/라니까, -다/자/냐/라면서’를 단일 표현으로 본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미’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냐니까, -냐면서’는 ‘-다니까, -자니까, -라니까’, ‘-다면서, -자면서, -라면서’와 달리 ‘-냐고 하니까, -냐고 하면서’가 줄어든 말이라는 정보만 있지만 다른 형태와 관련이 있어 단일 표현으로 분류했다. ‘-더라고(요)’는 ‘어미’라는 정보가 없고 어미 ‘-더라’에 인용조사 ‘고’가 결합한 말이라는 정보가 있지만 복합 표현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역시 단일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표준 모형』에서 ‘-다/자/냐/라니까, -다/자/냐/라면서’에 대해 최상급 표현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sup>6)</sup>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 표현은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로구나’의 경우 『표준 모형』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급 표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표준 모형』에 그 구성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표현과 비교하면서 상급 표현으로 보아야 할 구성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3 마)의 기타 구성은 용언이나 부사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인데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같이 제시하였다. ‘그랬더니’와 ‘무엇[누구, 어디]보다도’는 분석 가능한 형태이지만 ‘-’이 제시되지 않았고 굳어진 형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단일 표현으로 하였다. ‘마지못해, 몰라보게’ 역시 분석 가능한 형태이지만 굳어진 형태로 보아 단일 표현으로 하였다. 기타 구성에서 제시된 용언이나 부사의 경우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으로 처리된 것은 ‘마지못해’ 정도이고 ‘몰라보게, 무작정, 안절부절못하다’와 ‘먹음직하다’ 등은 어휘 목록에 없었다. 기타 구성으로 분류된 용언이나 부사는 중급 정도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복합 표현을 살펴보겠다. 각 구성을 더 이상 나누지 않고 가나다순의 형식으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복합 표현

가. 명사/의존명사 구성: 덕분에[으로], 만에, 불과 N 만에

나. 조사 구성: -도 마, -만 해도, -에 (가득) 차다, -에 능통하다, -에 달하다, -에 들어와서, (-에 따라) (-에) 차이를 보이다[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다], -에 몰두하다, (-에) 못지않게, -에 바탕을 두다, -에 불과하다, (-에) 신경(을) 쓰다, -에 -을/를 입다[신다, 쓰다], (-에/에게) -을/를 바치다, -에 의하면, -에 의해(서), -에 이르다, -에 중점을 두다, -에 지나지 않다, -에 지장이 있다[없다], -에(게) 마음을 붙이다, -에/에게 관심이 있다[없다], -에(도) 일리가 있다, -에서 다섯[열] 손가락 안에 들다, -와/과 달리, -(으)로 가득하다, -(으)로 보나 -(으)로 보나, -(으)로 손꼽히는, -(으)로 인해(서), -은/는 고사하고, -은/는 뒷전이다, -은/는 -(으)로(서),



-은/는 (중)의 하나이다, -을/를 대상으로 조사하다[연구하다],  
 -을/를 막론하고, -을/를 무릅쓰고, -을/를 비롯하다, -을/를 시키다,  
 -을/를 줄이다[늘리다], -을/를 챙기다, -을/를 취급하다, -을/를 통해(서),  
 -을/를 -(으)로 여기다, -을/를[이/가] -(으)로 취급하다[취급 받다],  
 -이/가 고작이다, -이/가 (다) 뭐예요?, -이/가 나서다, -이/가 부럽다,  
 -이/가 오죽하겠어요?, -이/가 -(으)로 나뉘다, -이/가 -(으)로 덮이다,  
 -이/가 줄다[늘다], -(이)나 -(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미 구성: -게 된 동기, -겠다는 결심을 하다, -고도 남다, -곤 하다,  
 -ㄴ/는다 -ㄴ/는다 하면서(도), -냐든지 -냐든지, -냐에 따라 다르다,  
 -느니 차라리, -니 -니 (하면서), -다기보다는, -다 보니(까), -다 보면,  
 -다 하더라도, -다고 야단(들)이다, -다고 하더니, -다고[라고] 밝히다,  
 -다느니 -다느니 (하면서), -든지 -든지, -아/어 달라고 부탁하다,  
 -아/어 대다, -아/어 버릇하다, -아/어 봤자, -아/어서 야단이다(야단났다),  
 -아/어서는 안 되다, -았/었냐든지 -았/었냐든지, -았/었더라면,  
 -(으)나 -(으)나, -(으)르지도 모르다, -(으)르지 -(으)르지,  
 -(으)라고 시키다, -(으)려고만 들다, -(으)려던 참이다,  
 -(으)리라(고) 생각하다[믿다, 짐작되다], -(이)라고 불리다,  
 -지 않으면 안 되다, -지도 마, 그리 -지 않다, 비록 -지만,  
 어찌나 -(으)ㄴ/는지, 여간 -지 않다, 일단 -(으)면,  
 한번 -아/어 보거나 하다

라. 명사형 구성: -기가 무섭게, -기까지 하다, -기는, -기는커녕, -기보다는,  
 -기에 이르다, -기에 좋다, -기조차, -(으)ㄴ에 따라, -임에 틀림없다

마. 관형사형 구성: -는 게 고작이다, -는 관습[습관, 사고방식],  
 -는 데(에) 마음을 붙이다, -는 데(에) 몰두하다,  
 -는 데(에) 열중하다[열중이다], -는 데(에) 일생을 바치다,  
 -는 데(에) 중점을 두다, -는 바람에, -는 사이(에),  
 -는 수가 많다[많이 있다], -는 한, -(으)ㄴ 감이 있다,  
 -(으)ㄴ 것이 엇그제 같다, -(으)ㄴ 덕분에[으로], -(으)ㄴ 채(로),  
 -(으)ㄴ/는 것으로 나타나다[조사되다, 알다], -(으)ㄴ/는 것은 당연하다,  
 -(으)ㄴ/는 것이 부럽다, -(으)ㄴ/는 게 (다) 뭐예요?,  
 -(으)ㄴ/는 게 틀림없다, -(으)ㄴ/는 경우가 (많이) 있다[없다],  
 -(으)ㄴ/는 데(에) 반해, -(으)ㄴ/는 데다가, -(으)ㄴ/는 듯하다,  
 -(으)ㄴ/는 반면에, -(으)ㄴ/는 셈이다, -(으)ㄴ/는/(으)ㄴ 경우(에)(는),  
 -(으)ㄴ 게 뻔하다, -(으)ㄴ 듯하다, -(으)ㄴ 리가 없다, -(으)ㄴ 만큼,  
 -(으)ㄴ 수조차 없다, -(으)ㄴ 전망이다[전망이 있다, 전망이 보인다],  
 -(으)ㄴ 정도로, -(으)ㄴ 정도이다, -(으)ㄴ 줄 누가[어떻게] 알았겠어요?,  
 -(으)ㄴ 줄이야, -(으)ㄴ 확률이 높다[낮다, 있다, 없다],  
 그렇다고 -(으)ㄴ/는 것은 아니다

바. 조사-어미 구성: -만 -아/어도 어딘데요, -에게 -도록 허락하다,  
 -을/를 -게 여기다, -을/를 -는 데 이용하다,  
 -(이/에서)든지 -(이/에서)든지, -처럼 -(으)ㄴ/는도 없다,  
 -(이)라고는 -밖에 없다, -(이)라고는 -뿐이다,  
 여간 -(으)ㄴ -이/가 아니다, 한 -(이)라도 -(으)면 (안 되다)

사. 어미-관형사형 구성: -(으)ㄴ래야 -(으)ㄴ 수(가) 없다

아. 기타 구성: 골치(가) 아프다, 구름[안개, 먼지]이/가 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의 떡, 기다렸다는 듯이, 눈(이) 빠지도록[게] 기다리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두고 보다, 마음만 먹으면, 바가지(를) 굶다,  
 반응을 얻다, 보기에[듣기에] 따라(서), 비행기(를) 태우다,  
 살이 찌다[빠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월이 (쏟살같이) 빠르다[지나가다], 소용(이) 없다, 손꼽아 기다리다,  
 아닌 게 아니라, 얼굴(을/만) 내밀다, 우물 안의 개구리,  
 인연이 있다[없다], 인연이다/인연이 아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을 (못) 차리다, 주머니 받거니 하다

(4 가)의 ‘덕분에[으로], 만에, 불과 N 만에’는 상급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데 『표준 모형』에서도 ‘덕분, 불과’는 중급 어휘로 제시되었고 ‘두 시간 만’의 ‘만’은 초급 어휘로 제시되고 있다. 상급 표현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4 나)의 조사 구성은 ‘조사+용언’ 형식이 많다. 이들 표현은 용언에 따라 연결되는 조사가 정해져 있는 문법적 언어로 볼 수 있는데 용언의 성격에 따라 초급이나 중급 또는 상급 표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용언 중에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의 어휘로 제시된 것은 ‘고작, 몰두, 오죽, 일리, 중점, 지장, 취급’과 ‘무릅쓰다, 손꼽히다’ 등이다. 그리고 ‘-는 고사하고, -를 막론하고’ 정도가 고급 문법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조사+용언’ 형식 중에는 문법적 언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급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4 다)의 어미 구성은 연결어미, 종결어미 구분 없이 제시하였는데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의 표현으로 제시된 것을 중심으로 보면 ‘-곤 하다, -냐든지 -냐든지, -냐에 따라 다르다, -느니 차라리, -니 -니 (하면서), -다고 야단(들)이다, -다고 하더니, -다고[라고] 밝히다, -다느니 -다느니 (하면서), -았/었냐든지 -았/었냐든지, -(으)르지도 모르다, -(으)르지 -(으)르지, -(으)라고 시키다, -(으)리라(고) 생각하다[믿다, 짐작되다], -(이)라고 불리다, 어찌나 -(으)ㄴ/는지’ 등은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은 복잡한 표현보다는 단순한 표현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표현이나 학습용 사전을 참조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라)의 명사형 구성은 주로 ‘-기’가 연결된 표현인데 ‘-기는, -기는커녕, -기보다는, -기조차’ 등은 ‘-기’ 뒤에 조사가 연결된 형태이다. 『표준 모형』에서 ‘-기가

무섭게'가 고급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4 마)의 관형사형 구성에서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급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으)ㄴ 채(로), -(으)ㄴ/는 데다가, -(으)ㄴ/는 듯하다, -(으)ㄴ 듯하다, -(으)ㄴ 리가 없다, -(으)ㄴ 만큼, -(으)ㄴ 줄이야’ 등이다. 그리고 ‘엿그제, 사고방식, 몰두, 중점’ 등의 단어가 고급 이상의 어휘로 분류되어 이들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도 상급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관형사형 구성의 특성상 ‘것’이나 ‘데’ 같은 의존명사가 연결되는 구성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구성을 문법적 연어 또는 하나의 굳어진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다.

(4 바, 사)는 ‘-’이 두 개가 있는 구성으로 조사와 어미, 어미와 관형사형 등 두 가지 형식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 표현 중에서 ‘-(으)ㄴ래야 -(으)ㄴ 수(가) 없다’의 ‘-(으)ㄴ래야’는 『표준 모형』에서 중급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려야, -으려야’는 최상급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sup>7)</sup> (4 아)의 기타 구성에는 다양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의 떡, 우물 안의 개구리’ 등의 관용구가 있는가 하면 ‘구름이 끼다, 반응을 얻다’ 등의 연어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표현을 상급 표현으로 보아야 할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단일 표현은 ‘어미 구성’을 제외하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복합 표현은 ‘조사 구성, 어미 구성, 관형사형 구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표현 모두를 상급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급 표현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접사 구성’이나 관용구가 제시되는 것은 상급 교재를 구성할 때 참조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교재는 제시된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중급과 상급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상급 교재를 살펴보겠다. 우선 단일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주로 ‘어미 구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단일 표현

가. 조사 구성: -만치, -에다가, -은커녕/는커녕, -조차

나. 어미 구성: -거니와, -건만, -길래, -네/-나?/-게/-세<하계체>, -노라면, -느니, -는다고/ㄴ다고/다고, -는답시고/ㄴ답시고, -더라고요, -더라도, -데요, -되, -었던들/왔던들/였던들, -오/-소/-구려<하오체>, -으니/니, -으련만/련만, -으리라/리라, -은들/ㄴ들, -을/ㄴ뿐더러, -을래야/ㄴ래야, -을지라도/ㄴ지라도

다. 기타 구성: 같아선

(5 가)의 ‘-만치, -조차’는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에다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표준 모형』에서도 ‘-만치, -조차’는 고급 표현으로 보았지만 ‘-에다가’는 초급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은커녕/는커녕’의 경우 서울대학교 교재에서도 나왔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이를 중급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5 나)에 나오는 표현들은 역시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표준 모형』에서 ‘-거니와, -더라도, -으리라/리라’ 정도만 중급 표현으로 처리하고 다른 표현들은 모두 고급 이상의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계체’나 ‘하오체’는 별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대학교 교재에서처럼 상급 표현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의 ‘어미 구성’에 나오는 어미들 대부분을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할 표현으로 본다면 이 어미들에서 합치거나 빼야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교육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5 다)의 ‘갈아선’의 경우 ‘갈다’는 초급 단어이지만 특수한 의미를 수반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급 표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sup>8)</sup>

복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6) 복합 표현

가. 조사 구성: -에다가 -까지, -에도 불구하고, -으로/로 말미암아,  
-으로/로 인해, -은/는 고사하고, -을/를 통해

나. 어미 구성: -겠거니 하고, -고서는, -기에 망정이지,  
-는다거나/ㄴ다거나/다거나,  
-는다고도/ㄴ다고도/다라고도/이라고도/라고도 할 수 있다,  
-는다기보다는/ㄴ다기보다는/다기보다는/이라고기보다는/라기보다는,  
-는다는/ㄴ다는/다는 점에서, -는다뿐이지/ㄴ다뿐이지/다뿐이지,  
-는다손/다손 치더라도, -다 못해, -다 보니 그로 인해, -다시피 하다,  
-어/아/여 주십사 하고, -어야/아야/여야 -지,  
-으니 어쩌니 해도/-이니 뭐니 해도, -으랴/랴 -으랴/랴,  
-으려고/려고 들다, -으리라 생각하던/이야기하던/말하던,  
-으리라는/리라는, -으면/면 몰라도, -은들 -겠어요?,  
-을까/ㄹ까 말까 생각 중이다, -을수록 -어지고는 있지만,  
-을수록/ㄹ수록 -어지다/아지다/여지다, -자니,  
-자니 -고 -자니 -고 해서, -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로서니

다. 명사형 구성: -기는커녕, -기 나름이다, -음에도 불구하고,  
-음으로써/ㄴ으로써

라. 관형사형 구성: -는 날엔, -는 등 마는 등 하다, -는 한, -는 한이 있더라도,  
-는/은/ㄴ 가운데, -는/은/ㄴ 데, -는/은/ㄴ 바, -는/은/ㄴ 셈치고,  
-는/은/ㄴ 탓에, -는/은/ㄴ/인 듯싶다, -는/은/ㄴ/인 만큼, -는/은/ㄴ/인 반면,

-는다는/ㄴ다는/다는 듯이, -던 차이다, -은/ㄴ 끝에, -은/ㄴ 이상,  
 -은/ㄴ 채, -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을 수 없으리만치,  
 -을/ㄴ 것까지는 없겠지만, -을/ㄴ 게 아니라, -을/ㄴ 바에야,  
 -을/ㄴ 법하다, -을/ㄴ 줄만 알았지, -을/ㄴ 테지만  
 마. 조사-어미 구성: -도 -거니와, -이라도 -을/ㄴ까 보다,  
 -이라도/라도 -을라치면/ㄴ라치면  
 바. 어미-명사형 구성: -긴 -나 보다, -긴 -나/은가/ㄴ가 보다  
 사. 어미-관형사형 구성: -어서 -을래야 -을 수가 없다, -을 때 -어야 -지

(6 가)의 조사 구성에서 상급 문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도 불구하고, -으로/로 말미암아, -은/는 고사하고’이다. 이들 구성은 『표준 모형』에서 고급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6 나)의 어미 구성은 그 양이 많고 구성도 복잡해서 상급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단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의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랴/으랴, -리라고/으리라고, -ㄴ들/은들, -ㄴ수록/을수록, -자니, -기로서니’ 등이다. 이들 표현이 연결된 구성은 상급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기에 망정이지’, ‘-는다/ㄴ다/다-’ 등이 들어가는 표현도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 이런 표현과 관련되는 ‘-는다기에’와 ‘-다고’ 등이 『표준 모형』에서 고급 표현으로 분류되었다.<sup>9)</sup>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표준 모형』에서 ‘-다시피, -려고/으려고’는 중급으로, ‘-면/으면’은 초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다시피 하다, -으려고/려고 들다, -으면/면 몰라도’에 대해 중급 표현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표준 모형』에는 대표형으로 볼 수 있는 표현만 나오고 한국어 교재처럼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나오는 표현을 어디까지 상급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6 다)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 나름이다, -음에도 불구하고’이다. 『표준 모형』에는 ‘-(으)ㄴ’명사형과 관련하여 ‘-ㄴ, -음’이 초급에 나오는 정도이고 다른 형태는 찾을 수 없다. ‘-기는커녕’과 관련해서는 ‘-ㄴ커녕, -는커녕, -은커녕, -커녕’이 중급에 나온다.

(6 라)의 ‘관형사형 구성’도 그 양이 많고 복잡하여 상급 표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형태와 관련되는 것은 ‘-는 등 마는 등 하다, -는/은/ㄴ 가운데, -은/ㄴ 이상, -은/ㄴ 채, -을/ㄴ 게 아니라, -을/ㄴ 바에야, -을/ㄴ 법하다, -을/ㄴ 줄만 알았지, -을/ㄴ 테지만’ 등이다. ‘-는/은/ㄴ/인 듯싶다, -던 차이다, -을 수 없으리만치’와 관련해서 『표준 모형』에서 ‘-는 듯하다’, ‘-던’, ‘-으니만치’를 고급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참조된다.<sup>10)</sup> 이러한 표현들은 상급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 마)는 ‘조사+어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도/라도 -을라치면/ㄴ라치면’ 정도이다. 『표준 모형』에서



‘-라도, -이라도’, ‘-르라치면, -을라치면’을 고급 이상 표현으로 보고 있다. ‘-르까 보다, -을까 보다’도 역시 초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6 바)와 (6 사)는 ‘어미’와 ‘명사형’ 또는 ‘관형사형’이 연결된 구성으로, 서울대학교 교재에서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구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서 -을래야 -을 수가 없다’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연세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문법 표현에는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표현을 상급 표현으로 본다면 비슷한 유형을 통합하고 주변적인 내용은 삭제하는 등 한국어 교재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상황에는 적당하겠지만 외국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상황에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많은데 이는 상급 교재에서 제시된 상급 표현 전부를 상급 과정에서 교육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이 행해지는 환경에 따라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문법 표현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상급 교재를 살펴보겠다. 경희대학교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내용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한 문법 표현이 많다. ‘주장, 동의의 근거를 말할 때, 시간 끌기, 제안할 때, 대상을 강조하여 말할 때’ 등 각 내용이나 상황에 맞는 문법 표현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문법 표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희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구성 가운데 문법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제시하였다. 먼저 단일 구성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7) 단일 표현

가. 조사 구성: -마저, -(이)나, -(이)라야, -(이)란, -(이)야, -조차

나. 접사 구성: -투성이

다. 어미 구성: -게<sup>1</sup>, -게끔, -고서, -기로서니, -느니, -는걸요, -다면, -다시피, -더라고(요), -더라니, -던데(요), -데(요), -도록, -되, -아/어야지, -았/었던들, -(으)ㄴ들, -(으)니만큼, -(으)르걸요?, -(으)르래(요), -(으)르뿐더러, -(으)면, -(이)요 -(이)다, -(이)자, -자, -자면, <조금 높임> -(으)시오, <조금 낮춤> -네, -(으)ㄴ/는가?, -나?, -(는)군, -게<sup>2</sup>, -(으)세

라. 명사형 구성: -(으)ㅁ, -기

마. 관형사형 구성: ‘-다는’과 ‘-(으)ㄴ/는’

바. 기타 구성: 통, 요컨대

(7 가)의 조사 구성에서 ‘-마저, -조차’는 역시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조차’는 서울대학교 교재와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도 상급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이)란, -(이)야’는 『표준 모형』에서 중급으로 분류되어 상급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7 나)의 ‘-투성이’는 접사 구성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것으로 서울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접사와 겹치지 않는다. 상급 표현에서 접사 구성을 다룬다면 어떤 접사를 대상으로 할지 그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7 다)의 어미 구성에는 ‘조금 높임’, ‘조금 낮춤’과 관련되는 어미가 제시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도 ‘하오체’, ‘하계체’로 제시되었는데 경희대학교 교재에서는 ‘-(으)시오’만 ‘조금 높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어법과 관련되는 이들 어미는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게<sup>1)</sup>’은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이 교재에서는 ‘앞에 오는 행위가 뒤에 오는 내용의 결과, 목표,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였다. 『표준 모형』에서는 ‘-게, -게끔’을 초급으로 분류하였다.

어미 구성 중에서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고서, -기로서니, -느니, -는걸요, -더라고(요), -더라니, -던테(요), -테(요), -되, -아/어야지, -(으)ㄴ들, -(으)니만큼, -(으)르래(요), -자, -자면’ 등인데 이들 어미는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요 -(이)다’의 ‘-(이)요’와 ‘-(이)자’는 “청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등의 문장에 쓰이는 연결어미로 『표준 모형』에서 고급으로 분류하였다.

(7 라)의 ‘-(으)ㄴ, -기’는 『표준 모형』에서도 초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상급 표현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교재에서는 이들 어미에 대해 “보고문, 경고문, 사전, 판결문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릴 때 사용된다.”, “공공 표어, 규칙, 속담 등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7 마)의 ‘-다는’과 ‘-(으)ㄴ/는’은 두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고 ‘-(으)ㄴ/는’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는 문법 형태의 경우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어느 과정에서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다음은 복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구성이다.

#### (8) 복합 표현

가. 조사 구성: -만이 아니다, -에 비해(서), -에서 볼 때,

- (으)로는 -이/가 제일이다, - (으)로 보아서는, - (으)로 볼 때,

- (으)로 인하여/인한, -은/는 -대로, -은/는 -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는 고사하고, -은/는 말할 것도 없고, -은/는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 경우에(는), -이/가 다 뭐예요?, 어디 -뿐인가요?

나. 어미 구성: -건 -건, -고 나다; -고 나니, -고 나면, -고 나서,

-고 말다; -고 말았다, -고 보니, -고(야) 말겠다, -기에 망정이지,

-다고 치다, -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 -다고 할까?/-(이)랄까?,

-다기보다, -다나요?, -다든지, -다지요?, -던가요?,

-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도 -(이)려니와, -든 -든, -아/어 내다,

- 아/어 대다, -아/어 죽다, -아/어 치우다, -아/어서 걱정이다,  
 -아/어서야 어디 -, -(으)ㄴ/는가 하면, -은/는 -(이)라고 해도,  
 -(으)니 -(으)니 해도/-느니 -느니 해도, -(으)니 망정이지,  
 -(으)니 할 수 없지요, -(으)니까 말인데, -(으)니까 봐 걱정이다,  
 -(으)려나 보다, -(으)면 얼마나 더 -겠어요?, -(이)라고 할 것까지야 없다,  
 -(이)라기보다, -(이)랄 것까지야 없다, -(이)야말로 -(이)라고 생각하다,  
 -자니, 과연 -(으)니까요?, 아무리 -다손 치더라도
- 다. 명사형 구성: -기(가) 일쑤이다, -기/게 마련이다, -기란, -기를 바랍니다,  
 -기 십상이다, -기 짝이 없다
- 라. 관형사형 구성: -는 것이 제일이다, -는 수가 있다, -는 중, -는 통에,  
 -(으)ㄴ 나머지,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 감이 있다,  
 -(으)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으)ㄴ/는 데, -(으)ㄴ/는 마당에,  
 -(으)ㄴ/는 반면(에), -(으)ㄴ/는 법이다, -(으)ㄴ/는 탓,  
 -(으)ㄴ/는/(으)ㄴ 경우에(는), -(으)ㄴ/는/(으)ㄴ 듯(이),  
 -(으)ㄴ/는/(으)ㄴ 듯싶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으)ㄴ 바, -(으)ㄴ 것이 아니라, -(으)ㄴ 때에는,  
 -(으)ㄴ 만큼, -(으)ㄴ 뿐, -(으)ㄴ 정도로, -(으)ㄴ 정도이다,  
 앞으로 -(으)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으)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 어미-관형사형 구성: -(으)ㄴ 줄 알았더라면 -(으)ㄴ걸
- 바. 기타 구성: 과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제 생각으로는, <인용 표현의 준말>

(8 가)의 조사 구성 중에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으로 처리한 것은 ‘-은/는 고사하고’ 정도이다. ‘조사+용언’ 구성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여러 개의 조사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 어느 과정에서 배워야 할지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8 나)의 어미 구성은 종류도 많고 구성도 복잡하다. 이러한 구성과 동일한 형태가 『표준 모형』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우선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으로 처리한 표현과 관련되는 구성은 ‘-건 -건, -던가요?, -아/어 내다, -아/어 치우다, -(으)려나 보다, -자니’ 정도이다. ‘-느니’의 경우 고급 표현으로 분류되었으니까 이 표현이 들어가는 ‘-(으)니 -(으)니 해도/-느니 -느니 해도’도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고(야) 말겠다’는 ‘-고야’가 최상급으로 분류되어 이 표현도 상급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조사 구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어미 구성의 경우도 그 등급을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8 다)의 명사형 구성은 ‘-기’가 연결되는 구성인데 ‘-기란, -기를 바랍니다’를 제외하고 다른 표현은 모두 『표준 모형』에서 고급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구성은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8 라)는 관형사형이 연결된 구성인데

『표준 모형』에서 고급 이상으로 분류한 것은 ‘-는 통에, -(으)ㄴ 나머지,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 마당에, -(으)ㄴ/는 법이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 만큼’ 등이다.<sup>12)</sup> ‘-는 중, -(으)ㄴ/는/(으)ㄴ 바’의 경우는 『표준 모형』에 이 구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는 중이다’, ‘-ㄴ 바에, -을 바에’가 고급 표현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급 표현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8 마)의 ‘-(으)ㄴ 줄 알았더라면 -(으)ㄴ걸’은 『표준 모형』에서 ‘-ㄴ 줄, -을 줄’이 최상급으로, ‘-ㄴ걸, -을걸’이 고급으로 분류되어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8 바)의 기타 구성은 내용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문법 표현을 구성한 경희대학교 교재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고 상급 표현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인용 표현의 준말’의 경우 『표준 모형』에서 ‘-ㄴ대, -는대, -는대요, -대, -대요, -래, -래요’를 고급 표현으로 분류하여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 교재의 경우 문법 표현만을 학습하는 형식으로 문법 표현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문법 표현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비슷한 문법 기능이나 의미 기능을 가지는 형태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법 교육 측면에서 보면 문법 표현만을 단순히 학습하는 것보다는 문법 표현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표현을 구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상급 교재를 살펴보겠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에는 ‘숙제책(Workbook)’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책이 있어 문법 표현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이 교재에 나오는 단일 구성 표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단일 표현

가. 명사/의존명사 구성: 끝에, 탓

나. 조사 구성: -대로, -마저, -은/는커녕, -(이)라든가, -(이)야말로, -조차

다. 접사 구성: -거리다, -꾼, -롭다, 한-

라. 어미 구성: -길래, -더-, -도록, -듯이, -어/아다(가), -었/았더니, -었/았던들, -었/았던지, -(으)ㄴ/는지라, -(으)ㄴ지라도, -(으)며, -지요

(9 나)의 조사 구성에는 다른 한국어 교재에서 상급 표현으로 제시된 ‘-마저, -조차’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조사의 경우 상급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하나 ‘-(이)야말로’는 판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 다)의 접사 구성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나 ‘한-’이라는 접두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다른 교재에서 접미사는 제시되었으나 접두사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접사 구성 중에 ‘-롭다’가 서울대학교 교재에서도 제시되어 겹칠 뿐이다. 접사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9 라)의 어미 구성에서 『표준 모형』에 고급 이상으로 분류된 것은 ‘-길래, -듯이, -(으)르지도, -(으)떠’ 정도이다.<sup>13)</sup> 선어말어미 ‘-더-’를 이 교재에서는 상급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표준 모형』에는 ‘-더-’는 없고 ‘-더-’와 관련되는 형태가 중급에서 ‘-더군, -더라, -더라도, -던데/-던데요’ 등이, 고급에서 ‘-더구나, -더군요, -더냐, -더니, -더니마는, -더니만, -더라고/-더라고요, -던, -던가, -던데, -데/-데요’ 등이, 최상급에서 ‘-더라니, -더라니까/-더라니까요, -더라면, -더랍니다, -더래, -더래요, -던걸/-던걸요’ 등이 제시될 뿐이다. 선어말어미 ‘-더-’를 상급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었/왔던들, -었/왔던지’는 상급 표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복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구성이다. 다른 교재에 비해 그 형태가 많지 않다.

#### (10) 복합 표현

가. 조사 구성: -뿐(만) 아니다, -(으)로 말미암아, -(으)로 불리다, -을/를 통해(서)

나. 어미 구성: -고 말다, -곤 하다, -(ㄴ/는)다거나, -(ㄴ/는)다기보다, -어/아 가다, -어/아 내다, -어/아 두다, -어/아 오다, -었/았으면 싶다, -(으)ㄴ가 보다, -(으)네 -(으)네 하다, -(으)려고 보니까

다. 명사형 구성: -기(가) 일쑤이다, -기 짝이 없다, -었/았음에도 불구하고

라. 관형사형 구성: -는 한, -(으)ㄴ 끝에, -(으)ㄴ/는 데다가, -(으)ㄴ/는 양, -(으)ㄴ/는 탓, -(으)ㄴ/는/(으)ㄴ 듯이, -(으)ㄴ/는/(으)ㄴ 바, -(으)ㄴ/는/(으)ㄴ 정도

마. 어미-관형사형 구성: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

(10 가)의 조사 구성에서 『표준 모형』에 나오는 형태는 없다. 다만 ‘-(으)로 말미암아’의 경우 ‘말미암다’가 고급 이상 어휘로 분류되는 정도이다. ‘말미암다’를 고급 어휘로 본다면 ‘-(으)로 말미암아’도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 나)의 어미 구성에서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곤 하다, -어/아 내다, -(으)ㄴ가 보다’ 정도로, 이들 구성은 『표준 모형』에서 고급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10 다)의 명사형 구성은 모두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가) 일쑤이다, -기 짝이 없다’는 다른 교재에도 나오는 구성이고 ‘-었/았음에도 불구하고’와 관련해서는 『표준 모형』에서 ‘-에도 불구하고’를 고급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10 라)의 관형사형 구성에서 ‘-(으)ㄴ/는 데다가’가 유일하게 『표준 모형』에서 고급 표현으로 분류되고 있고 ‘-(으)ㄴ/는/(으)ㄴ 바’와 관련하여 ‘-ㄴ 바에, -을 바에’라는 형태가 고급 표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판정하기 어렵다. (10 마)의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재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상급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 제시된 문법 표현이 많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구성도 많지 않았다.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교재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제시하는 문법 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급 표현을 정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정된 분량의 교재에서 문법 표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4. 한국어 상급 교재와 상급 표현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를 중심으로 상급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본고는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상급 표현들이 국립국어원의 『표준 모형』에 고급 이상의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급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기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표준 모형』을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법 표현에 대한 빈도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술이 개인적인 의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상급 교재에 나오는 상급 표현을 분류하고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단일 표현 중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상급 교재에서 두 교재 이상에서 나오는 문법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 (11) 단일 표현

가. 조사 구성: -마저, -조차, -은/는커녕, -(이)야, -(이)야말로

나. 어미 구성: -길래, -느니, -더라고(요), -았/었던들, -(으)르뿐더러,  
-(으)르지라도, -노라면, -다시피, <하게체>, <하오체>

(11 가)의 ‘-은/는커녕’과 (11 나)의 ‘-다시피’는 『표준 모형』에서 중급으로 분류했지만 상급 교재에 나타난다.<sup>14)</sup> (11 가)의 ‘-(이)야, -(이)야말로’는 『표준 모형』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11 나)의 ‘-노라면’은 관련되는 형태인 ‘-노라, -노라고, -노라니, -노라니까’ 등이 『표준 모형』에서 최상급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어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복합 표현 중에서 두 교재 이상에서 나오는 문법 표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복합 표현

가. 조사 구성: -에도 불구하고, -(으)로 말미암아, -(으)로 인해,  
-은/는 고사하고, -을/를 통해

나. 어미 구성: -고 말다, -곤 하다, -기에 망정이지, -다기보다,  
-다 보니, -다손 치더라도, -든 -든, -아/어 내다, -아/어 대다,

-(으)려고 들다, -자니

다. 명사형 구성: -기가 일쑤이다, -기 짝이 없다, -음에도 불구하고,  
-기 마련이다

라. 관형사형 구성: -는 수가 있다, -는 한, -(으)ㄴ 끝에, -(으)ㄴ 채,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 데, -(으)ㄴ/는 데다가,  
-(으)ㄴ/는 반면에, -(으)ㄴ/는 탓, -(으)ㄴ/는/(으)ㄴ 경우에,  
-(으)ㄴ/는/(으)ㄴ 듯이, -(으)ㄴ/는/(으)ㄴ 듯싶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으)ㄴ 바,  
-(으)ㄴ/는/(으)ㄴ 정도, -(으)ㄴ 만큼

마. 어미-관형사형 구성: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

복합 표현 중에서 (12 가)의 ‘-(으)로 인해, -을/를 통해’는 『표준 모형』에서 중급으로 분류했거나 그 구성이 없는 것이다. (12 나)의 ‘-고 말다, -든 -든, -아/어 대다, -(으)려고 들다’ 등도 『표준 모형』에서 중급으로 분류했거나 그 구성이 없는 것이다. (12 라)의 ‘-는 수가 있다, -는 한, -(으)ㄴ 끝에, -(으)ㄴ/는 데, -(으)ㄴ/는 반면에, -(으)ㄴ/는 탓, -(으)ㄴ/는/(으)ㄴ 경우에, -(으)ㄴ/는/(으)ㄴ 듯이, -(으)ㄴ/는/(으)ㄴ 듯싶다, -(으)ㄴ/는/(으)ㄴ 정도’ 등도 『표준 모형』에서 중급으로 분류했거나 그 구성이 없는 것이다. (12 마)의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도 『표준 모형』에 그 구성이 없다.<sup>15)</sup>

이처럼 상급 교재에 동일한 문법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그 표현을 상급 표현으로 보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단순히 처리했지만 『표준 모형』에 제시되는 형태와, 상급 교재에 나오거나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 5. 결론

본고는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 중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재를 대상으로 각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 표현을 분석하였다. 문법 표현을 단일 표현과 복합 표현으로 나누었고 단일 표현은 다시 조사 구성, 접사 구성, 어미 구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복합 표현은 조사 구성, 어미 구성, 명사형 구성, 관형사형 구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일 표현의 경우 조사 구성과 어미 구성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접미사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사 구성을 상급 과정에서 교육한다면 어떤 접사 구성을 상급 표현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복합 표현의 경우 각 상급 교재에서 제시되는 문법 표현이 많고 다양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역시 어미 구성과 관형사형 구성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관용구나 연어 구성도 제시되어 이들을 상급 표현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시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표준 모형』을 통해 초급, 중급, 상급 등의 문법 표현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문법 표현을 반영한 교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급이나 중급 과정과 달리 상급 과정 이상의 경우는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문법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여기에서 제시한 문법 표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문법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고 교육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라는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발된 한국어 문법서와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한층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표현 내용 자료를 개발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한국어 문법 표현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고는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의 문법 표현을 분석하고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각각의 문법 표현을 상급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고찰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초급, 중급, 상급 과정에서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문법 표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 모형』 사업,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사업>,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개발 연구> 등의 성과와 한국어 교재, 한국어 문법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 〈註〉

- 1) 고려대학교에서 출판된 『재미있는 한국어 5』와 『재미있는 한국어 6』은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부록에서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 2) 이는 일본에서 한글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출판된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合格トウミ (도우미)上級編』과의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한글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그 어휘나 문법 표현이 공개되어 한국어 학습자나 수험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이 보고서의 경우 제목이 길기 때문에 본고에서 인용할 때는 『표준 모형』으로 제시하겠다.
- 4) 국립국어원의 『표준 모형』에서는 ‘문형’ 부분에서 본고의 ‘단일 표현’의 경우 ‘연결, 선어말어, 종결, 전성, 조사’ 등으로, 본고의 ‘복합 표현’의 경우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어휘 목록 개발 연구』에서는 본고의 ‘단일 표현’의 경우 ‘보조사, 부사격조사, 관형사형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으로 제시하고 본고의 ‘복합 표현’의 경우 별다른 분류 없이 ‘복합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복합 표현’에는 ‘문법적 연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5)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명사(N), 형용사(A), 동사(V)에 연결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러한 정보를 생략하고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 순서도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다른 교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각 교재에 나타나는 형태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부록에서 교재에 나타나는 형태를 각 과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제시한다.

- 6) 『표준 모형』에 나오는 형태는 ‘-ㄴ다니까, -는다니까, -다니까, -라니까’, ‘-ㄴ다면서, -는다면서, -다면서, -라면서’이다.
- 7) ‘-(으)래야’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래야’는 ‘-려야’의 잘못으로, ‘-올래야’는 ‘-으려야’의 방언으로 풀이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올래야’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고 ‘-래야’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관련어로 제시된 ‘-으려야’에 대해서는 ‘-려야’도 제시하고 있다.
- 8) ‘갈아선’과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뜻풀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갈아서(는)’ 꼴로 ‘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 뒤에 쓰여))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 ((‘갈아서는’ 꼴로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그 시간에 벌어진 일이나 상황 따위가 계속된다면’의 뜻으로 쓰여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 9) ‘-다고’와 관련하여 『표준 모형』에 나오는 표현은 ‘-ㄴ다고, -는다고, -다고, -라고’ 등이다. 『표준 모형』에는 ‘-ㄴ다-, -는다-, -다-, -라-’를 포함하고 있는 ‘-ㄴ다네, -는다네, -다네, -라네; -ㄴ다더라, -는다더라, -다더라, -라더라; -ㄴ다면, -는다면, -다면, -라면’ 등의 표현이 고급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 10) 『표준 모형』에는 관형사형어미 ‘-던’과 ‘-ㄴ 듯하다, -는 듯하다, -은 듯하다’, ‘-느니만큼, -느니만치, -니만큼, -으니만큼, -으니만치’ 형태로 나온다.
- 11) 『표준 모형』에 나오는 관련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느니, -느니보다, -느니보다는; -ㄴ 걸, 는 걸, 은 걸/-ㄴ 걸요, 는 걸요, 은 걸요;  
 -더라고/-더라고요; -데/-데요; -되, -으되, -로되; -아야지, -어야지, -여야지;  
 -ㄴ 들, -은 들; -느니만큼, -느니만치, -니만큼, -으니만큼, -으니만치;  
 -르래, -올래/-올래요
- 12) 『표준 모형』에 나오는 관련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ㄴ 나머지, -은 나머지; -는 가운데, -은 가운데; -ㄴ 마당에, -는 마당에, -은 마당에;  
 -ㄴ 법이다, -는 법이다, -은 법이다; -ㄴ 듯하다, -는 듯하다, -은 듯하다,  
 -르 듯하다, -올 듯하다; -르 만큼, -올 만큼
- 13) 『표준 모형』에 나오는 관련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듯, -듯이; -르지라도, -올지라도; -며, -으며
- 14) ‘-다시피’는 경희대학교 교재에서는 단일 표현으로 분류했지만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다시피 하다’ 구성으로 나타나 복합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경희대학교 교재

분류를 따라 단일 표현에서 제시하였다.

- 15) 양명희·이선웅(2014)에서 『표준 모형』의 중급 문법·표현 항목과 <한국어능력시험>의 초급,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비교·검토하면서 목록에는 없지만 고급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당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거들랑(-걸랑), -노라면, -을뿐더러(-르뿐더러), -자니까(-자니), -는구려(-구려),  
-는구먼(-구먼, -구먼요, -는구먼요), -그러, -ㄴ[‘이리 온’], -으렴(-렴), -으리라(-리라),  
-습디다(-히디다), -으오(-오)

이 중에서 ‘-으렴(-렴), -으리라(-리라)’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지만 고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參考文獻>

논문

강현화(2007), 「한국어 교재의 문형유형 분석 - 문형 등급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18.

강현화(2011),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전망」, 『언어사실과 관점』 27.

강현화(2012 가), 「코퍼스와 한국어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30.

강현화(2012 나), 「표준교육과정의 어휘·문법 위계화에 대한 제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12.

강현화 외(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 단계)』, 국립국어원.

권용경(2012),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의 관형사형어미 ‘-(으)르’ 결합 구성에  
대하여」, 『韓國語學年報』 8.

권용경(2013),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의 ‘-느-’ 결합 구성에 대하여」, 『韓國語學年報』 9.

김중섭 외(2009),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어휘 목록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중섭 외(2010),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어휘 목록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2 단계)』, 국립국어원.

김호정 외(2012),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 단계)』, 국립국어원.

남윤진(2012), 「한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문법학습의 과제와 코퍼스의 활용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30.

민현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아카넷.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서상규·유현경·남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3-1.

석주연·양명희(2013),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의 제시 형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34.

양명희·이선웅(2014), 「한국어 교육 중급 문법·표현 항목 선정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36.

이은경·이선웅(2004), 「한국어 활용어미 교육을 위한 말뭉치 구축」, 『텍스트언어학』 17.

이혜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9.



한국어 교재 및 사전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7), 『한국어고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7), 『한국어고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5』,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6』, 교보문고.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3), 『한국어 4』,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1), 『연세대학교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1), 『연세대학교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IV(Workbook)』,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2006),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부록: 한국어 상급 교재 문법 표현 정리

1. 서울대학교 교재(한국어 4)

- 1 과 A/V-(으)ㄴ 리가 없다, N 에 의하면, A/V-(으)ㄴ지도 모르다, N 을/를 쟁기다, 쓸데없다
- 2 과 N 에게 V-도록 허락하다, V-아/어 달라고 부탁하다, A/V-(으)ㄴ, N 만에, A/V-(으)나
- 3 과 우물 안의 개구리, V-(으)려던 참이다, N 마저, A/V-(으)ㄴ 정도이다, A/V-(으)ㄴ 정도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기에[듣기에] 따라(서)
- 4 과 A/V-(으)ㄴ 확률이 높다[낮다, 있다, 없다], N(이)라고는 N 뿐이다, N(이)라고는 N 밖에 없다[못 V], 골치(가) 아프다, 구름[안개, 먼지]이/가 끼다
- 5 과 N 에/에게 관심이 있다[없다], N 에/에게 관심을 가지다, V-고도 낡다, V-(으)ㄴ 만큼, N-별(로), A/V-지 않으면 안 되다, N 처럼 A/V-(으)ㄴ/는도 없다
- 6 과 N 을/를 줄이다[늘리다], N 이/가 줄다[늘다], 반응을 얻다, 무엇[누구, 어디]보다도, V-다가는, N 이/가 N(으)로 덮이다, N 이/가 나서다
- 7 과 A/V-다면서(요)?, A/V-다고 하더니, A/V-(으)ㄴ/는 데다가, 한번 V-아/어 보거나 하다, V-다 보면, V-다 보니(까), 바가지(를) 굶다, 그림의 떡, 비행기(를) 태우다, 눈(이) 빠지도록[게] 기다리다
- 8 과 A/V-다/자/냐/라면서, V-(으)ㄴ 것이 엇그제 같다, 세월이 (쏟알같이) 빠르다[지나가다], N(으)로 가득하다, A/V-냐든지 A/V-냐든지, A/V-았/었냐든지 A/V-았/었냐든지
- 9 과 N-롭다, 그랬더니, N 을/를 A-게 여기다, N 을/를 N(으)로 여기다, V-는 관습[습관, 사고 방식], V-기보다는, A/V-더군(요)
- 10 과 V-곤 하다, N(에) 들어와서, N 덕분에[으로], V-(으)ㄴ 덕분에[으로], V-는 데(에)열중하다[열중이다], A/V-(으)ㄴ/는 경우가 (많이) 있다[없다], A/V-(으)ㄴ/는/(으)ㄴ 경우(에)(는), 비록 A/V-지만, V-아/어다(가), 당하다
- 11 과 (N 에 따라) N(에) 차이를 보이다[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다], N 가운데, A/V-(으)ㄴ/는 것으로 나타나다[조사되다, 알다], N 을/를 대상으로 조사하다[연구하다], A/V-(으)ㄴ/는 셈이다, A/V-(으)므로, N 을/를 시키다, V-(으)라고 시키다
- 12 과 A/V-냐에 따라 다르다, N-거리, S-(으)나 S-(으)나, A/V-(으)ㄴ 게 뻔하다
- 13 과 N 와/과 달리, N 이/가 부럽다, A/V-(으)ㄴ/는 것이 부럽다, A/V-고 말고(요), 오히려, 그렇다고 A/V-(으)ㄴ/는 것은 아니다, N 만 A/V-아/어도 어딘테요
- 14 과 V-는 데(에) 몰두하다, N 에 몰두하다, N 에 중점을 두다, V-는 데(에) 중점을 두다, V-는 사이(에), N 에 의해(서), A/V-다/자/냐/라니까
- 15 과 불과 N 만에, N 에 달하다, S-다고[라고]밝히다, 일단 A/V-(으)면, A/V-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A/V-더니만
- 16 과 A/V-(으)ㄴ/는 데(에) 반해, N 에 지나지 않다, 아닌게 아니라, 몰라보게 V, 그리 A/V-지 않다, A/V-(으)ㄴ/는 듯하다, A/V-(으)ㄴ 듯하다, V-(으)려고만 들다
- 17 과 N 은/는 N(중)의 하나이다, N 에 N 을/를 입다[신다, 쓰다], 손꼽아 기다리다, N 에 (가득) 차다
- 18 과 N(이)나 N(이)나 할 것 없이, V-기에 좋다
- 19 과 마음만 먹으면, A/V-기는커녕, N 은/는커녕, V-(으)ㄴ 수조차 없다, V-기조차, N조차, A/V-(으)리라(고) 생각하다[민다, 짐작되다], N 은/는 고사하고, V-는 한, N-당

- 20 과 기다렸다는 듯이, 주거나 받거나 하다, V-(으)ㄴ 채(로), V-노라면
- 21 과 (N에) 신경(을) 쓰다, N도 마, V-지도 마, V-기가 무섭게, V-아/어 대다, V-는 바람에, N은/는 뒤편이다, 당연히 A/V, A/V-(으)ㄴ/는 것은 당연하다, 믿음직[먹음직, 바람직]하다
- 22 과 N(으)로 인해(서), A/V-아/어 봤자, 아주 V, N(에) 못지않게, 마지못해 V, N-(이)로구나, N에 불과하다
- 23 과 A/V-(으)ㄴ지 A/V-(으)ㄴ지, N을/를 V-는 데 이용하다, N을/를 통해(서), 안절부절못하다, 한 N(이)라도 V-(으)면 (안 되다)
- 24 과 N(으)로(서), N은/는 ... N(으)로(서), N(으)로(써), N에 이르다, V-기에 이르다, N(이)에서)든지 N(이)에서)든지, A/V-든지 A/V-든지, N이/가 N(으)로 나뉜다, N에 바탕을 두다, N(이)라고 불리다
- 25 과 그러던 어느 날, N-질, 두고 보다, 정신을 (못) 차리다, 정신(이) 없다
- 26 과 N을/를 무릅쓰고, V-게 된 동기, (N에/에게) N을/를 바치다, V-는 데(에) 일생을 바치다, N이/가 (다) 뭐예요?, A/V-(으)ㄴ/는 게 (다) 뭐예요?, V-겠다는 결심을 하다, N이/가 오죽하겠어요?
- 27 과 N(이)야말로, N스럽다, 무려, N을/를 비롯하다, 무작정 V, V-아/어 비롯하다
- 28 과 S-다고 야단(들)이다, A/V-아/어서 야단이다[야단났다], A/V-다느니 A/V-다느니 (하면서), A/V-니 A/V-니 (하면서), N(에)도 일리가 있다, V-는 수가 많다[많이 있다], N을/를 [이/가] N(으)로 취급하다[취급 받다], N을/를 취급하다
- 29 과 인연이 있다[없다], 인연이다/인연이 아니다, A/V-아/어서는 안 되다, A/V-왔/있더라면, A/V-(으)ㄴ 줄 누가[어떻게] 알았겠어요?, A/V-(으)ㄴ 줄이야, V-(으)ㄴ래야 V-(으)ㄴ 수(가) 없다
- 30 과 N(으)로 보나 N(으)로 보나, N(으)로 손꼽히는 N, N-임에 틀림없다, A/V-(으)ㄴ/는 게 틀림없다, N에서 다섯[열] 손가락 안에 들다, V-(으)ㄴ에 따라, A/V-(으)ㄴ 전망이다[전망이 있다, 전망이 보인다]
- 31 과 N을/를 막론하고, A/V-다기보다는, A/V-기까지 하다, V-느니 차라리, 차라리, A/V-(으)ㄴ/는 반면에, 살이 찌다[빠지다]
- 32 과 A/V-ㄴ/는다 A/V-ㄴ/는다 하면서(도), 얼굴(을/만) 내밀다, 고작(해야), V-는 게 고작이다, N이/가 고작이다, 어쩌나 A/V-(으)ㄴ/는지, N(에)게 마음을 붙이다, V-는 데(에) 마음을 붙이다
- 33 과 <시와 노래>
- 34 과 A-(으)ㄴ 감이 있다, N(이)야, N만 해도, A/V-더라고(요)
- 35 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여간 A-(으)ㄴ N이/가 아니다, 여간 A/V-지 않다, A/V-기는, N에 지장이 있다[없다], N에 능통하다

## 2. 연세대학교 교재

### 연세한국어 5

- 1 과 -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을수록 -어지고는 있지만, -오, -소, -구려 (하오체),

- 네, -나?, -게, -세 (하계체) {-조차, -을수록/르수록 -어지다/아지다/여지다, 상대높임법}
- 2 과 -음에도 불구하고, -도 -거니와, -에다가 -까지, -을 때 -어야 -지  
{-에도 불구하고, -거니와, -에다(가), -어야/아야/여야 -지}
- 3 과 -긴 -나 보다, -길래, -기는커녕, -을뿐더러  
{-길래, -긴 -나/은가/ㄴ가 보다, -은커녕/-는커녕, -을/르뿐더러}
- 4 과 -데요, -더라고요, -되, -는 한
- 5 과 -어서 -을래야 -을 수가 없다, -을까 말까 생각 중이다, -는다고, -더라도  
{-을래야/르래야, -을까/르까 말까 생각 중이다, -는다고/ㄴ다고/다고, -더라도}
- 6 과 -는다고도 할 수 있다, -는 듯싶다, -으니 어찌니 해도/-이니 뭐니 해도, -은들 -겠어요?  
{-는다고도/ㄴ다고도/다고도/이라고도/라고도 할 수 있다, -는/은/ㄴ/인 듯싶다, -으니/니, -은들/ㄴ들}
- 7 과 -는다기보다는, -자니 -고 -자니 -고 해서, -같아선,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는다기보다는/ㄴ다기보다는/다기보다는/이라고보다는/라기보다는, -자니, -같아선, -을/르 것까지는 없겠지만}
- 8 과 -으랴 -으랴, -다 보니 그로 인해, -는 만큼, -지 않고서는  
{-으랴/랴-으랴/랴, -으로/로 인해, -는/은/ㄴ/인 만큼, -고서는}
- 9 과 -으리라 생각하던/이야기하던/말하던, -을 수 없으리만치, -을 줄만 알았지, -을 게 아니라  
{-으리라/리라, -만치, -을/르 줄만 알았지, -을/르 게 아니라}
- 10 과 -다시피 하다, -이라도 -을까 보다, -을 통해, -음으로써  
{-다시피하다, -을/르까 보다, -을/를 통해, -음으로써/ㅁ으로써}

#### 연세한국어 6

- 1 과 -느니, -을지라도/르지라도, -는다거나/ㄴ다거나/다거나, -는/은/ㄴ 데  
{-느니, -을지라도/르지라도, -는다거나/ㄴ다거나/다거나, -는 데}
- 2 과 -어/아/여 주십사 하고, -었던들/왔던들/였던들, -으면/면 몰라도, -겠거니 하고  
{-었던들/왔던들/였던들, -어/아/여 주십사 하고, -으면/면 몰라도, -겠거니 하고}
- 3 과 -은/ㄴ 체, -으리라는/리라는, 아무리 -기로서니, -은/ㄴ 끝에
- 4 과 -는다뿐이지/-ㄴ다뿐이지/다뿐이지, -을/르 법하다, -는/은/ㄴ 가운데, -을/르 테지만  
{-는다뿐이지/ㄴ다뿐이지/다뿐이지, -을/르 법하다, -는 가운데, -을/르 테지만}
- 5 과 -는/은/ㄴ 셈치고, -으련만/련만, -는/은/ㄴ 탓에, 이라도/라도 -올라치면/르라치면  
{-는/은/ㄴ 셈치고, -으련만/련만, -는/은 탓에, -이라도/라도 -올라치면/르라치면}
- 6 과 -는다는/ㄴ다는/다는 듯이, -건만, -는답시고/ㄴ답시고, -는 날엔
- 7 과 -은/ㄴ 이상, -는다는/ㄴ다는/다는 점에서, -는/은/ㄴ/인 반면, -으로/로 말미암아
- 8 과 -다 못해, -기에 망정이지, -는 등 마는 등 하다, -던 차이다
- 9 과 -기 나름이다, -는다손/다손 치더라도, -는 한이 있더라도, 은/는 고사하고  
{-는다손/-다손 치더라도, -기 나름이다, 은 고사하고, -는 한이 있더라도}
- 10 과 -으려고/려고 들다, -노라면, -는/은/ㄴ 바, -을/르 바에야

### 3. 경희대학교 교제

#### 고급 1

- 1 과 주장/동의의 근거를 말할 때: -다는 점에서 -다고 생각하다, -다는 점에 대해서, -의 의견에 동의하다  
인터뷰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인용 표현의 준말: ‘-다고 하다’에서 ‘-고 하-’ 생략,  
시간 끝기: -다고 할까? / -(이)랄까?,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국 -게 되었다.  
이야기는 -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다시피
- 2 과 -(이)라야, -는걸요, -(으)르걸요?, -(으)면, -다면, -다고 치다, -(으)니 -(으)니 해도  
/ -느니 -느니 해도, -(으)로는 -이/가 제일이다, -(으)니 할 수 없지요,  
-(으)면 얼마나 더 -겠어요?, -이/가 다 뭐예요?, 축하할 때, 위로할 때, 조문할 때
- 3 과 앞에 나온 화제를 유지할 때: -(으)니까 말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높임: -(으)시오, 조금 낮춤: -네, -(으)ㄴ/는가?, -나?, -(는)군, -게, -(으)세,  
상대 높임: 아주 높임, 조금 높임, 조금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으)ㄴ/는가 하면, -자면, -(이)요, -(이)다, -(으)니만큼
- 4 과 제안할 때: -(으)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서, -(으)ㄴ, -기, ‘-다는’과 ‘-(으)ㄴ/는’,  
-의 경우에(는), -(으)ㄴ/는/(으)ㄴ 경우에(는)
- 5 과 -다나요?, -(으)로 볼 때, -에서 볼 때, -(으)로 보아서는, -고 보니, -기 십상이다,  
-든 -든, -건 -건, 상담 동기를 말할 때
- 6 과 -아/어서야 어디 ~?, -(으)ㄴ/는/(으)ㄴ 듯(이), -더라니, -던가요?, -더라고(요),  
-던데(요), -데(요), 의견을 조율할 때
- 7 과 -(이)란, -기란, -(으)려나 보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으)ㄴ 듯싶다,  
-(으)ㄴ/는 반면(에), -되, 화제를 바꿀 때
- 8 과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 감이 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는 수가 있다,  
-(으)ㄴ/는 데, -(으)ㄴ/는/(으)ㄴ 바, -는 중, -(으)ㄴ 뿐, -(으)ㄴ/는 마당에

#### 고급 2

- 1 과 -느니, 사동 표현, 결과 표현: -게, -게끔, -도록, -도 -(이)려니와, -자
- 2 과 -(으)ㄴ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강조하여 말할 때: -(이)야 말로 -(이)라고 생각하다,  
원인 표현: -(으)로 인하여/인한, -(으)ㄴ 나머지, -(으)ㄴ/는 탓, -는 통에
- 3 과 어디 -뿐인가요?, -은/는 -대로, -만이 아니다, 보조사: -마저, -조차, -(이)나,  
-(이)야, -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 / -(이)라고 할 것까지야 없다 / -(이)랄 것까지야 없다,  
질문을 통해 내용을 명료화할 때
- 4 과 -(으)ㄴ/는터러, -은/는 말할 것도 없고, 완료 표현: -고 말다; -고(야) 말겠다, -고 말았다,  
-고 나다; -고 나니, -고 나면, -고 나서, -아/어 내다, -투성이, 통, -기 짝이 없다,  
-다든지, -에 비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 5 과 -다지요?, -(으)ㄴ/는(요), 당위 표현, 정도 표현: -(으)ㄴ/는 법이다, -아/어야지,  
-기/게 마련이다, 정도의 비교: -(으)ㄴ/는 만큼 / -(으)ㄴ/는 정도로 / -(으)ㄴ/는 정도이다, -자니,  
-(이)자



- 6 과 -(으)ㄴ 줄 알았더라면 -(으)ㄴ걸, -(으)니 망정이지, -기에 망정이지, -은/는 고사하고,  
-기(가) 일쑤이다, 가정·양보 표현, 후회 표현: 아무리 -다손 치더라도, -(으)ㄴ들, -았/었던들,  
-기로써니
- 7 과 상담할 때: -(으)ㄴ까 봐 걱정이다, -아/어서 걱정이다, -(으)ㄴ 때에는 -는 것이 제일이다,  
-다기보다 / -(이)라기보다, 보조 동사: -아/어 죽다, -아/어 대다, -아/어 치우다, 보조 동사,  
화제를 종료하고 싶을 때
- 8 과 발표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저는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입니다,  
과연 ~(으)ㄴ까요?, -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는 -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 다음으로 …… 첫째, …… 둘째, …… -은/는 -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는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요컨대, 제 생각으로는,  
-은/는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를 바랍니다, -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으)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으)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 1 과 -(으)며, -듯이, -(으)ㄴ/는/(으)ㄴ 듯이, -있/있던지, -마저
- 2 과 -더-, -(으)ㄴ지라도, -(으)ㄴ/는/(으)ㄴ 바, -는 한, -(으)ㄴ/는지라
- 3 과 -도록, -기(가) 일쑤이다, -어/아 오다, -고 말다, -어/아다(가)
- 4 과 -있/있으면 싶다, -(으)ㄴ/는 양, -(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다, -(으)로 불리다
- 5 과 -(으)ㄴ/는 데다가, N 탓, -(으)ㄴ/는 탓, -기 짝이 없다, -어/아 가다, -꾼
- 6 과 -길래, N 끝에/-(으)ㄴ 끝에, -조차, -을/를 통해(서), -롭다
- 7 과 -지요, -(으)네 -(으)네 하다, -(으)ㄴ/는/(으)ㄴ 정도, -(ㄴ/는)다기보다, -(ㄴ/는)다거나
- 8 과 -(으)ㄴ가 보다, -은/는커녕, -(이)야말로, -어/아 내다, 한-
- 9 과 -있/있더니, N 대로, -있/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다, -(이)라든가
- 10 과 -어/아 두다, -(으)려고 보니까, -곤 하다, -있/있었던들,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

#### 5. 고려대학교 교재

##### 재미있는 한국어 5

- 1 과 -야말로, 다만, 제발, 설마, -다가도
- 2 과 -는 셈치고, -프로
- 3 과 -ㄴ 만큼, -되
- 4 과 -락-락하다, - 싶다
- 5 과 -오-
- 6 과 -게 마련이다, -ㄴ까요
- 7 과 -다가 보면, -는 한, -이자
- 8 과 -리라, A 라든가 B 같은 C
- 9 과 -다고 치다, -고서야

10 과 덕분에/탓에, -로써

재미있는 한국어 6

1 과 -기로서니, -야

2 과 -르 대로, -랴 -랴

3 과 '하계'체, -리라고는

4 과 -니 -니, -전마는

5 과 <소설>

6 과 -ㅁ에도 불구하고, -르 바에야

7 과 -ㄴ들, -르래야

8 과 -거니와, -냐 -냐

9 과 -다손 치더라도, -르 리 만무하다

10 과 -고도, -도록

## 韓国語上級教材における文法表現について

權容璟

神田外語大学

本稿は、ソウル大学校、延世大学校、慶熙大学校、梨花女子大学校から出版された上級教材を対象に、各教材の文法表現を分析した。文法表現は単一表現と複合表現に分けて分類した。単一表現の場合、助詞構成と語尾構成を中心に文法表現が提示されたが、接尾辞が提示されているもの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複合表現の場合、各教材において提示されている分法表現が多く多様であったが、やはり語尾構成と冠形詞形構成を中心に提示されており、慣用句や連語構成を提示した教材もあった。

2つ以上の教材において出てくる文法表現のうち、中上級表現と見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提示すれば、以下のとおりである。まず、単一表現の場合、助詞構成においては、‘-마지, -조차’であり、語尾構成においては ‘-길래, -느니, -더라고(요), -았/었던들, -(으)ㄴ뎡더러, -(으)ㄴ지라도’ 등이다. 복합 표현의 경우는 조사 구성에서 ‘-에도 불구하고, -(으)로 말미암아, -은/는 고사하고’ 등이고 어미 구성에서 ‘-곤 하다, -기에 망정이지, -다기보다, -다 보니, -다손 치더라도, -아/어 내다, -자니’などである。冠形詞形構成においては ‘-(으)ㄴ 채, -(으)ㄴ/는 가운데, -(으)ㄴ/는 데다가,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으)ㄴ 바, -(으)ㄴ 만큼’程度である。

本稿は韓国において出版された上級教材の文法表現を分析し、国立国語院の『国際通用韓国語教育標準母型開発（2段階）』を基準として、各々の文法表現について、上級表現と見ることができるのかを考察した。今後は、このような考察を土台にして、初級、中級、上級課程において実際に教育することができる文法表現について、検討しようとする。